올 청년후계농 1800명 선발

농식품부, 지원대상자 농업소득 증대 등 바탕 전년보다 신규 선발 규모 200명 확대

전북은 294명… 1800명중 독립경영 1~3년차 583명에 이달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후계농) 1,8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8~2020년 총 4,800명의 청년후계농을 선발한 바 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800명 포함 총 6,6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원대상자의 농업소득 증대, 영농기반 조성 기여 등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전년(1,600명) 대비 신규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했다.

올해 사업에는 전년 대비 477명이 증가한 총 3,511명이 지원(경쟁률 2:1)했으며,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올해 선발된 1,800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시도별 인원은 경북·전북·전남·경남·충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294명이다.

영농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1,217명(67.6%), 독립경영 1년차 483명(26.8%), 2년차 71명(3.9%), 3년차 29명(1.6%)으로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18년 42.5%, 2019년 59.3%, 2020년 65.7%에 이어 67.6%(전년대비 1.9%p↑)로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계 졸업생은 1,353명(75.2%)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447명(24.8%)의 약 3.0배 수준이며, 귀농인이 1,291명(71.8%)으로 재촌 청년 508명(28.2%)의 약 2.5배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으로 인해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생산(예정 포함) 품목을 보면 채소류 26.1%, 과수류 15.5%, 축산 13.3%, 식량작물 9.7%, 특용작물 7.0%, 화훼류 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축산과 경종 복합경영은 9.1%, 기타 품목 복합경영은 15.6%이다. 영농기반 마련 유형을 보면,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 청년이 882명(49.0%)이고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 청년은 369명(20.5%)이었으며,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 청년은 549명(30.5%)이었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후계농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농지임대, 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선발된 1,800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583명에게는 4월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 1,217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희망하는 청년후계농에게는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금리 2%)을 지원하고,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하여 비축농지도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며,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12일부터 30일까지 농업교육포털(agriedu.net)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업 분야의 발전가능성 및 도시지역에서의 취업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비청년농업인들의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정담' 군산서 군산시와 농협군산시지부는 전북농협과 함께 지난 2일 시지부 회의실에서 2021년 군산시 상생정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통한 통합마케팅조직 역량구축 선포식'을 개최했다. 군산시 지역특색사업 및 2021년 지자체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군산시 농업·농촌 발전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상생정담에는 군산시 관내 농·축협조합장, 농업인대표, 유관단체장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김윤상 기자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시 상향해달라"

진안·백운농협 조합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건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진안농협(조합장 허남규)·백운농협(조합장 신용빈)·협진안군지부(지부장 정미경)와 함께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상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합장들은 "올 설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에 힘써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축산물 소비 진작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농가 고령화·도동간 소득격차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다행"이라며 "조합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농업인의 삶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전북중기청·중기진흥공단 전북본부 등 제품 소비촉진 협약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근영, 이하 중진공) 등 9개 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일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북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촉진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지역 경제단체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1부 ㈜두손푸드의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2부 협약식 체결 순으로 진행됐으며, 협약식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및 제품 소비촉진, 자금·마케팅 등 참여기관 연계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사회적경제기업 1곳 이상을 선택해 릴레이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참여기관 및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 등 50곳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제품을 구매하는 버킷챌린지 방식의 소비촉진운동 벌이는 등 5,000만원 이상의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9개 기관은 지난 2일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북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촉진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초보 도시농부가 알아야 할 **텃밭 가꾸기 정보**

작물 선택 장소에 맞게·씨앗보다 모종

아주심기 한달 지난 후 2~3에 웃거름

최근 대파 가격 상승으로 '집에서 대파 키우기' 열풍이 뜨거웠다. 기후변화로 농작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는 텃밭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봄을 맞아 초보자들이 여가를 활용해 쉽게 즐길 수 있는 실내외 텃밭 가꾸기 정보를 지난 2일 소개했다.

◇장소에 맞춰 작물 선택

텃밭은 주거 공간을 기준으로 실외와 실내 텃밭으로 나눌 수 있다. 실외 텃밭은 옥상, 화단 등 남는 공간을 활용한 텃밭과 공영·민영 도시농업농장에서 분양받는 텃밭 등이 있다. 실내 텃밭은 주거 공간 안에서 즐기는 베란다 텃밭이 대표적이다.

실외 텃밭은 온도, 바람 등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작물 종류에 따라 심는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4월 중순에는 상추, 쑥갓, 근대, 케일 등 잎채소와 미나리, 부추 등 ▲4월 하순에는 강낭콩, 비트, 토마토, 오이 등 ▲5월 상순에는 가지, 고추, 고구마 등을 권한다.

실내 텃밭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실외보다 햇빛(광량)이 부족하므로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이른 봄부터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화분이나 플라스틱 텃밭 상자 등을 이용해 상추, 청경채, 겨자채, 케일 등의 잎채소와 적환무, 부추, 쪽파, 바질, 루꼴라 등을 키우면 좋다. 관리가 쉬운 새싹보리, 새싹밀 등 새싹작물도 추천한다.

◇씨앗보다는 모종을

처음 텃밭 가꾸기에 도전하는 초보자는 씨앗(종자)보다는 모종을 구매해 재배하는 것이 좋다. 씨앗의 경우 아주심기 약 1~2달 전부터 파종, 솎음작업 등 모 기르기(육묘)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강한 모종을 구매해 이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모종은 봄과 가을에 구매할 수 있는데, 모종을 살 때는 잎이 깨끗하고 생기가 있으며 흰색 뿌리가 흙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잘 감싸고 있는 것이 좋다. 물 관리가 안 돼 많이 시들거나 뿌리 부분 흙이 바짝 마른 모종 등은 피해야 한다.

◇아주심기 후 물·거름 관리

실내외 텃밭에 아주심기를 할 때 흙(상토)은 모종의 뿌리 위쪽 표면이 살짝 보일 정도로 덮어준다. 이후 뿌리가 충분히 젖을 정도로 물을 충분히 준다. 물주는 간격이나 양은 작물이 자라는 상태나 날씨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통 모종을 심은 뒤 뿌리가 충분히 내릴 때까지는 2일~3일에 1번, 뿌리가 충분히 내린 뒤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 흠뻑 준다. 또한, 작물이 자라면서 밑거름만으로는 양분이 부족하므로 아주심기 한 달 후부터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웃거름을 2회~3회 정도 준다. 웃거름은 재배하는 작물의 '작물용 비료' 또는 '웃거름용 비료'를 시중에서 구매해 사용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고농도의 비료가 작물에 직접 닿으면 해를 입기 때문에 약 15㎝ 떨어진 곳에 준다.

실내외 텃밭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초보자를 위한 책자 '도시농업 농자재 정보'와 '베란다 텃밭 가꾸기'를 참고하면 좋다. 이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원문보기와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농서남북(lib.rda.go.kr/pod)에서 주문도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도시농업과장은 "여가활동으로 텃밭을 가꾸면 정서적 안정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텃밭 정보를 활용해 올봄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기에 도전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기 혁신바우처 사업 집중 지원

전북중기청, 13억7500만원 투입… 오늘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5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근영)와 함께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13억7,500만원을 투입해 집중 지원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의 도내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바우처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분야 등 3개 분야 16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분야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분야 3개 서비스(탄소중립 경영혁신·융복합·산업안전) 프로그램 신설 ▲평가기간 단축(77일→56일)으로 신속지원 기반 조성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로 수요자 편의성 증대 ▲매칭 전문가 지연기업에 배치하여 사업추진 밀착 관리 ▲후보기업 운영을 통한 가수요 대응 관리 ▲매칭·서비스 검색 편의성 향상 등 시스템고도화로 수요자 검색 편의성을 제공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 추진에 있어 도내 주력산업과 규제자유특구 산업분야을 연계한 자동차 분야 및 탄소 융·복합 산업 분야의 기업이 신청할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함으로써 우리지역 성장엔진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사태취약지역 선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방산림청과 시·군·구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고시하게 된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업을 비롯해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구축과 대피장소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문자송출 등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위험요소 발견 시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조준규 서부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는 위험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자연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긴 시간 보관중 농기계 사용 전 사전점검해야

전북농기원 "이상 있는 부분은 수리해야" 당부

전북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본격적인 영농철를 대비해 장기간 보관했던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사전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수리할 것을 당부했다.

계절의 영향 등으로 농기계를 운행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 농기계를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 방전, 타이어 공기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점검은 필수적이다.

특히 겨울철에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했던 트랙터, 이앙기 등의 농기계는 우선 외부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녹이 슨 부분에는 기름칠을 하고 윤활유가 필요한 곳은 윤활유를 주입하며 볼트·너트의 느슨한 곳과 배터리 및 타이어 상태의 등의 이상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미션 오일, 냉각수, 에어클리너, 배터리 등 소모품은 보충하거나 교환을 하여한다. 연소장치 및 변속장치 등의 동력전달계통과 같은 부품들은 정기적으로 전문정비공장에서 점검을 받는 것도 농기계를 고장 없이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역량 강화교육 오늘부터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하 청년혁신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5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분야별 역량 강화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분야별 역량 강화 교육은 회계, 마케팅, OA, 코딩 총 4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은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김윤상 기자